

김준호 과거 폭로한 홍석천 "너 게이클럽 왔었잖아"

등록 2026.04.25 11:00:00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방송인 홍석천이 코미디언 김준호가 게이클럽에 온 적이 있다고 폭로한다. 김준호는 지난해 결혼했다.

홍석천은 25일 방송하는 채널5 예능프로그램 '니돈내산 독박투어4'에서 김대희·김준호·장동민·홍인규와 함께 충남 청양으로 여행을 간다. 청양은 홍석천 고향이다.

이들은 홍석천이 추천한 한우 소갈비 식당을 찾는다. 이곳은 청양 특산물인 맥문동으로 양념을 하는 현지 맛집이다.

홍석천은 "맥문동이라는 약재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하며 맥문동 양념 갈비를 직접 굽는다. 또 구기자를 넣은 독특한 청양냉면도 주문한다.

홍석천은 고기와 냉면 등으로 식사비가 47만원이 넘어서자 "난 (독박게임에서) 빠져도 되냐. 이 고기 다 내가 구웠잖아"라며 김준호 유행어를 사용한다.

김준호는 "'자나자나' 은근히 많이 쓴다. 그거 내 유행어다"며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에 발끈한 홍석천은 "'자나자나'는 원래 이태원 거자나. 네가 갖다 쓴 거자나. 너 이태원 게이클럽 왔었잖아"라며 김준호 과거를 폭로한다.

당황한 김준호는 "옛날에 대희형과 이태원에 갔을 때"라며 해명에 나선다.

김준호는 지난해 7월 코미디언 김지민과 결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